



삽화·이기선

우리는 영겁의 수레 돌리는 주인

생각과 행동이 곧 업보... 삼세를 지금처럼 보아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윤회하는 삶 <三世輪回>

온하게 우주는 무한한 것이다. 이 우주세계가 언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중대한 일이다. 과학자라 하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하지 못한다. 빅뱅이론이 도입되기도 하지만 후론에 해당할 뿐이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처음과 끝이 있을 수 없다. 우주전립의 시간과 우주상극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또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도 무한하다. 한 생명이 무량겁으로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다. 이 무량겁에 살고 있는 중생은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다. 어찌부터 오늘까지 살고 있고 또 내일 살아갈 것이다. 이 어제를 긴 어제로 보면 이것이 과거가 되고 또한 이 과거를 더 연장해 보면 대과거(大過去)가 되고 대과거를 무한히 연장해 보면 무량 과거가 될 것이다. 과거가 무량하면 현재도 무량하고, 미래도 무량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시간은 무량겁이다.

수억 겁 살아온 생명

사람들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도 겨우 몇 만년이나 몇 천년을 두고 계산한다. 구석기, 신석기, 철기시대로 분류하지만 인간의 역사가 정말 몇 천년 밖에 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도 무수겁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일회용 생명체라고 확정하면 잘못이다.

역사는 되풀이 한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회전하고 있다. 역사도 윤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승되어진다. 왜 반복할까. 이것은 의식의 반복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생각과 행동은 업보가 된다.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업보의 작용이

아남의 잔영이 생긴 것이다. 사실 인간은 사람(思量)하기 어려운 먼 과거부터 살아온 것이다. 그 과거에서 눈여겨 사귀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처음 보는 듯한 착각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의 눈은 현상적인 물체 밖에 보지 못한다. 어떤 존재를, 가시적 존재만 분별할 수 있다.

지혜의 눈 밝히도록

그러나 마음의 눈, 의식의 눈은 지금 여기에 없는 모든 존재, 의식을 하나 빠짐없이 요망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응여시관(應如是觀) 마땅히 이와같이 관찰하라)하는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사람은 여시관하기도 합니다. 만 현재의 사실만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삼세를 응여시관하는 더 높은 지혜의 눈을 갖지 못하였다. 한계상황이 언제나 사람 앞에 부딪치게 된다. 그 한계가 바로 현실인 것이다.

또한 이처럼 여시관하는 생명체는 여시행(如是行), 여시생(如是生)한다. 그러므로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한다고 하면 신비주의나 이상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의 수레에 실려가고 있으며, 또한 생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능전자(能轉者)이다. 바로 전환하는 실체이다. 우주륜(宇宙輪)을 돌리고 있으며 그 우주륜에 관하여 있는 역사의 인자를 새기면서 회전하는 것이다. 즉 업의 드러남이며, 이 업이 무한히 전승하듯 우리의 삶도 윤회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여도 삼세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법구경에서 말하고 있다. 바다속, 바위굴, 허공에 숨을 수 있다해도 사람의 행위는 어디를 막론하고 따라 나가고 다시 업과의 결과를 환하게 증시한다. 그러므로 삼세는 있는 것이고 또한 삼세 윤회는 불교의 시간법이 아니라 우주적 시간이 아니겠는가.

“글 쓰려 81세에 컴퓨터 배워”

“네놈을 게 하나도 없어. 나이가 많다는 것뿐인데, 그것도 자랑할 죽에 끼어주라.”

그때도 결집 넘보지 않고 50여년을 오직 출판사업에 매진해온 본의 세상 사는 얘기가 소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도서출판 현암사의 설립자인 조상원 회장이 대답 대신 책 한권을 건넨다. <삼에 이르는 삶>

“이 책에 담은 토막글들은 내가 오랫동안 일하며 살아오면서 이따금 생각난 것들을 적어둔 것인데, 그중에서 무언가 뜻이 있을 법한 것들을 실은 거예요. 바라건대, 내 뒤에 오는 젊은이들 중에서 한구절이나마 가슴에 닿는 것이 있다면, 참된 삶에 이르러 보겠다고 살아온 나의 삶의 보람이라 할까...”

삼은 때로 발랄하고, 겨울 이른 아

있다. 그 중간에는 네명이 앉으면 그만인 소파가 누추하다. 그밖에 책장과 시계, 액자 및 개가 이 곳을 장식하는 소품의 전부다.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책상에 놓인 노트북컴퓨터이다. 제작된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나니 손이 떨려 원고를 손으로 쓰기가 힘들었다. 원고 쓰는 일은 그의 평생의 일. 죽는 날까지 글쓰기, 그래서 130만원 주고 사서 배웠다. 그때 나이가 여든한 살. “남들은 왜나 신기한 일로 여기더구먼.”

이 노트북에는 권 권이 넘는 글이 저장돼 있다. 내년엔 펴낼 ‘법(法)수상집’ 원고다. 오늘은 4-3을 쓸 생각이 다. 4-3은 수상집에 실릴 원고의 장·절을 구분한 것으로, ‘두드려진’ 원고는 서판 속에 나뉘어 보관되듯 수차례



산문박의

출판외길 50년

현암사 설립자 조상원 씨

침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의 나머지 시간들은 형체도 없이 버겁고 남의 삶처럼 무덤덤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을 일러 ‘일체개고’(一切皆苦)라 했단다.

그렇다면 80여 성상(내년이면 여든네살이 된다)의 노안이 되돌아보며 들려주는 삶의 형체는 무엇일까. “시공에 안 보이는 신에 의탁할 건가. 제 운명 제 나름이라. 삶이란 무엇인데...” 그의 대답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일과 성실, 자기성찰의 명제로 이어진다.

그는 별로 재미없이 살아간다. 쉬는 날 가까운 이들과 어울려 건강도 돌볼 겸 산에 오르거나, 화초에 취미붙여 어린 손자 돌보듯 애지중지하는 일만도 없어보인다. 매일 아침 10시면 아현동 2층 누옥의 사무실로 출근해 새벽까지 일고를 쓰고 다듬는 일을 반복한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일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 는 질투하기도 했다.”

그가 출근하는 사무실은 회장이지만, 여느 출판사의 사무실과 다를없다. 6평 남짓한 방에 들어서면 가장 가까이엔 명쾌도 없는 그의 책상이 있고, 오른쪽 건너편 창가에 법전편찬 작업을 함께하는 다른 직원의 자리가

따라 분류되어 저장된다.

‘법’은 그의 특별한 관심사다. 1945년 현암사를 창립, <세인스피어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암문고’를 냈다.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출판업 또한 명맥을 잇기에도 곤궁한 시절이었다. 그래도 10여년을 버텼다. 오늘날의 현암사를 있게 한 ‘효자’를 1959년에야 얻는다. ‘처음으로 대히트를 쳤다’는 ‘법집’이 그것으로, 국내 최초로 펴낸 대한민국 법령집이다.

이후 오늘날까지 40년의 세월을 밤에 매달렸다. 출판사의 모든 일은 일찍이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법안은 그의 것이다. 그래서 직함이 회장이지만 현암사의 법전편찬부 책임자 이상의 일은 아들의 몫이다.

“명성이랄 할까, 나름대로 선 비속이 매일 아침 30분씩 정좌하지. 요가도 한 20년 했어. 이만치 건강하게 사는 이유야. 들레는 일이지. 조금씩이나마 일을 하나씩 그렇듯 일에서 숨을 났으면 치매에 걸렸던지 병신이 되었거나 했겠지.”

아들들 그는 아내가 질투할 만큼 일에 매달린다.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일에 열중하다보면 기적도 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일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내내는 질투하기도 했다.”

는 전날 미리 행거간 일보따리를 풀어 놓아야 한다. 일이 그의 삶의 뼈대를 이루었다. ‘일에 열중하다보면 기적이 온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엔 기적이 없다.’

‘아삼경에 대한 빚정을 먼저보라’는 경봉선사의 일종제도 그는 일로써 풀이한다. ‘아삼경은 밤11시부터 이른날 1시까지를 말하니 민중이 잠든 시각이

다. 도둑이 침범할 때도 이때이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의 밤잠을 경계한 말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30년도 훨씬 넘은 시절에 들었던 얘기 하나가 전해준다.

옛날 프랑스의 조그마한 개인 은행에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다. 여직원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 은행에서는 이미 직원 채용을 마감한 뒤였다. 아가씨는 무안한 듯이 고개를 떨구고 떠나오다가 옆에 앉어놓고 나오려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된 은행장이, “잠깐, 아가씨 이리 와요”하고 불렀다. 은행장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런 하나를 아끼지 않는 아가씨가 아주 기록하군.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해요...” 이 아가씨는 후일에 이 행장의 머리가 되었다.

그의 뼈대가 일어났다면, 성실과 자기성찰은 괴와 삶을 빛냈다.

“마를 가는 곳에 물이 가니 물의 주소는 없는 것이로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자.” <정성운 기지>

“동림동문회를 이끌어갈 임원단이 새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0일 남장사에서 열린 동림 동문회에서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후배 양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임원단을 다시 조직 개편하였습니다.

참석치 못한 동문 스님들을 위해서 새로 추대된 스님과 새로 조직된 운영위원과 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엔 참석해 주신 많은 동문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애써주신 전회장단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 서울 연락사무소 : 능인정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호

(02)462-1335, FAX(02)462-1339

임원진명단

자문위원 : 대우스님 진명스님 성진스님 자용스님 시몽스님 범우스님 지안스님 해인스님 중립스님 지광스님 서암스님 동명스님 고담스님 진영스님 지담스님 현성스님

운영위원 : 전희원스님

회장 : 성용스님

수석부회장 : 송암스님

부회장 : 효정스님 지암스님 원산스님 해연스님 연담스님 송목스님 윤철스님 현광스님

감사 : 정진스님 도공스님 범정스님

사무총장 : 범경스님 차장 경진스님

기획실 : 장적스님 대현스님 해연스님 송목스님 침암스님

사무국 : 1국 현도스님 2국 범성스님 3국 자용스님 4국 정우스님 차장 제현스님 차장 현조스님 상덕스님 성지스님

총무부장 직인스님 재무부장 일범스님 교무부장 현정스님 섭외부장 진우스님 차장 귀영스님 차장 보명스님 차장 연암스님

봉사부장 범봉스님 포교부장 도정스님 차장 석현스님 차장 성현스님

동림동문회 사무실 연락처 및 각기 대표 연락처

출입회수	기대표	직책	성명	시할명	전화	
1기	총회장	회장	이성용스님	남장사	(0582)34-6331 31-0047	
1기		사무총장	조범경스님	능인정사	(02)462-1335 FAX 462-1339	
1기	1	기획실장	노장적스님	전륜왕사	(02)888-6300	
1기	1	회장	지암스님		(015)232-8823	
1기	1	국장	김현도스님	법안정사	(02)642-0364 646-4975	
2기	1	회장		박해연스님	능천사	(0334)72-9315 012-221-6564
2기	2	국장	김범성스님	불국사	(02)577-3994	
3기	1	회장	김송목스님	봉선사	(0346)68-1951 554-6820 011-252-5389	
3기	3	국장	방자용스님	연화사	(02)964-6167 962-6186 962-3174	
4기	1	회장		박현광스님	보문사	(042)253-6271 (02)736-6203
4기	4	국장	이정우스님	선학원	(02)765-0972 763-7158	
1기		총무부장	김적일스님	보현사	(02)333-3769	
1기		재무부장	김일범스님	진관사	(02)357-0195	

동림동문회 회장 성웅 합장